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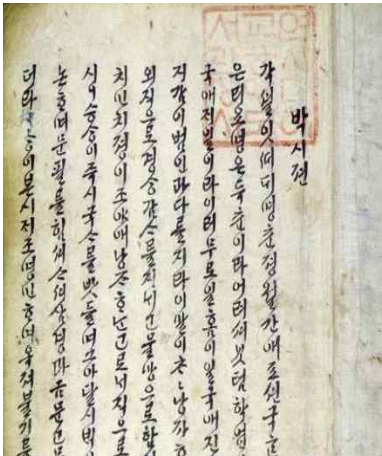
3학년 ( )반 ( )번 ( )

📁 작품 열기

조선 숙종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 군담 소설<sup>1)</sup>로, ( 박 씨 전 )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허구적 인물인 박씨가 ( 오 스 )적 기상과 재주로 ( 호 노 ) 왕과 적장을 농락하고 ( 노 스 )적 ( 스 노 )을 고취한다는 내용으로, ( 오 스 )적 사실에 ( 호 노 )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 박 씨 전 )이라는 치욕적 사건과 당시 민중이 느꼈던 전란(戰亂)의 ( 호 노 )을 정신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창작된 것이다.

1. 이 작품의 내용(‘•’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 ‘▶’는 작품 전체를 바탕으로 한 내용)

( 박 씨 )	•박씨는 이시백과 ( 호 노 )하지만 ( 오 노 ) 때문에 ( 노 스 )를 받음. ▶조선 ( 오 스 ) 때 한양에서 태어난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명망이 조정과 재야에 떨쳤다. 아버지 이 상공이 주객으로 지내던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여, 이시백은 박 처사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다.	( 노 스 ) 내의 갈등
( 스 노 )	•박씨는 ( 노 )에서 본 ( 오 스 )을 전해 이시백의 ( 스 노 스 )를 도움. •박씨는 박 처사의 도움으로 ( 호 노 )을 벗고 ( 스 스 노 )이 됨. ▶이시백은 신부의 ( 오 노 )가 천하의 ( 박 씨 )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씨는 이 상공에게 청하여 후원에 ( 호 노 )을 짓고 소일을 하며 홀로 지낸다.	
( 오 노 )	•박씨가 ( 스 스 )을 침입한 용골대를 물리치자 용골대가 ( 호 노 )을 찾아와 공격함. ▶박씨는 자신의 여러 가지 신이한 재주를 드러내 보이지만, 이시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박씨가 시기가 되어 ( 호 노 )을 벗고 ( 스 스 노 )이 되자 이시백은 크게 기뻐하며(???) 이후로는 박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박씨의 ( 박 씨 )
( 스 스 )	•박씨는 ( 호 노 )을 침범한 용골대를 물리치고 ( 호 노 )을 받아 냄. ▶( 호 노 )의 가달이 ( 오 노 ) 형제에게 삼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 스 스 )을 침략하게 한다. 그러나 박씨는 뛰어난 ( 노 )을 발휘하여 오랑캐를 물리친다.	( 노 노 ) 간의 갈등
( 노 노 )	•박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 스 노 노 )의 칭호를 받음. ▶박씨와 이시백은 ( 노 노 ) (國難)을 극복하고 ( 호 노 )한 여생을 보낸다.	



1)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활약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쓰여진 소설을 ‘군담(軍談) 소설’이라고 한다. 이 중 여성 군담 소설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활약하여 국가적 위기나 사회적 갈등을 타개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 2. 이 작품의 중심 인물: 박씨 → 교과서 55쪽-1-②, ④

- 이 작품에서 남편 이시백은 (표 바)한 인물인 데 비해, 박씨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바 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봉건적 가족 제도(→ 기 바 스 스)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오 스)들의 욕구와 전란에서 패배한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 아울러 (오 스)도 남성 못지않게 (기 나)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씨의 (오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 오): 뛰어난 (나 나)을 인정받지 못하고 (츠 히) 외모로 살아가야 하는 것.</li> <li>(오 오)의 끝: (오 나 나 오) 모습으로 변하여 (나 나)을 인정받으며 (히 바)하게 삶.</li> </ul>
박씨의 뛰어난 (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룻밤에 이 상공의 관복을 짓고, 미래의 불운을 예견하여 (표 히 나) 주변에 (나 나)를 심음.</li> <li>이시백에게 (기)에서 본 상서로운 (오 스)을 전하여 (스 오 기 스)를 도움.</li> <li>순식간에 (기 나)을 타고 (기 기 스)에 다녀옴.</li> <li>신묘한 도술로 (표 히 나)에 침입한 용골대 및 (츠 나 나) 군사를 물리침.</li> </ul>

## 잠깐! '계화'의 역할은?

- 계화는 박씨의 시비로, 이 작품 안에서 박씨를 (나 나)하여 직접 적장과 마주하고 그들을 격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박씨를 전선(戰線)에 직접 세우지 않고, 계화로 하여금 매개하게 함으로써 박씨의 (사 바 히)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외부에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오 바)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잠깐!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 이 작품에서는 김자점, 용골대, 이시백, 최명길 등과 같은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실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실제 (사 기)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히 사 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 3. 이 작품의 이중 구성 [feat. (바 사) 모티프2)] → 교과서 55쪽-1-③

- 이 작품은 추녀인 박씨가 (스 스 기 오)으로 변신하기까지의 전반부와 (바 스 히 나)를 배경으로 박씨가 영웅적으로 활약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전·후반부의 전환이 되는 사건이 바로 박씨의 (바 사)이다.
- 변신 전에 박씨는 (표 히 나)에서 삼 년 동안 시집 식구들과 교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데, (바 사)은 일종의 (테 기 오 나)로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박씨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사회적 (오 오)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전반부	전환	후반부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박씨의 변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씨의 활약
가정 내의 갈등	→ '(테 기 오 나)'	국가 간의 갈등

## 4.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창작 의도 → 교과서 55쪽-1-④

- 이 작품은 (바 스 히 나)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바 스 히 나)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이 작품에서는 오랑캐의 장수 (오 기 나)와 (오 오 나) 형제가 군사를 몰고 조선에 쳐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조선의 군대는 이를 막지 못해 임금이 (나 히 사 사)으로 도망치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박씨가 비범한 재주를 발휘하여 (오 오 나)를 처단하고 (오 기 오)으로 하여금 용골대까지 물리치도록 한다. 실제로는 치욕적인 (표 바)를 겪었던 역사적 사건을, 박씨의 활약으로 통쾌하게 (사 나)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스 스 사)을 회복하려는 민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2) 인간·동식물·사물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모티프.

예) “한편, 막씨와 장원 부인이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니, 꿈에 선관이 나타나 다시 만날 것을 알려 준다. 마침내 꿈을 깨고 보니 금방울이 껍질에서 벗어나 선녀가 되어 있었다.” — <금방울전> 줄거리 중

역사적 현실	허구적 내용
(ㄷㄹㄹ) 태종이 조선을 침공하여 인조가 (ㅎㅂ)한 부분	박씨가 신통력을 부려 (ㄷㄹㄹ) 장수를 상대로 (ㅅㄹ)한 부분
의의	조선의 (표ㅂ)로 끝난 (ㅂㅅㅎㄹ)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상처 받은 민족의 (ㅅㄱㅅ)을 다시 고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남.

5. 핵심정리

주제	•박씨 부인의 (ㅇㅇㅅ) 기상과 재주.
특징	•주인공은 (ㅎㄱ)적 인물이나, 역사적 (ㅅㅅ) 인물들이 등장하여 작품에 (ㅅㅅㄱ)과 (ㅎㅅㅅ)을 부여함. •(ㅇㅅ) 주인공을 통해 (ㅇㅅ)의 능력을 부각하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여 당시 여성들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함. •(ㅂㅅㅎㄹ)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ㅅㄹ)라는 허구로 바꿈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ㅂㅅ)받고자 하는 당대 민중의 (ㅅㅁ)을 담음.

도전!!! 수능 기출 문제\_[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작수형)] (2008. 11. 시행)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심욕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택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혼인은 인물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히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다.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서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얹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라고 말 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 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鴈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 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정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겸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